

국악 신예 등용문 '임방울 국악제' 올해도 열린다

10월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서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 등 열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상금 4000만원

국악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국악제가 펼쳐진다. 제29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향교 등에서 열린다.



임방울 선생.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고 광주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악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신인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경연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생부는 판소리, 기악(관악·현악), 무용 부분으로 구성됐고, 일반부는 판소리, 농악,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병창, 퓨전국악 등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0월1일 오후 6시30분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는 아마추어 국악인들의 자치인 임방울 판소리 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 판소리에 관심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금·은·동·장려상 등 입상자 50명에게 1000만원의



제29회 임방울국악제가 오는 10월1~4일 광주향교,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경연 모습.

상금이 주어진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전야제 축하공연이 열리며, 이날 공연은 KBC 광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제28회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정금 명창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난해 농악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김천농악 오형우 외 9명의 농악놀이로 문을 연다. 이어 가야금 병창 이유리(제20회 문화체육부장관상)가 임방울 선생의 애창곡이었던 '호남가'를 부르며, 김찬미 명창(제13회 통령상)은 '춘향가' 중 '쑈대머리'를 들려준다. 또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진(眞)을 차지한 양지은이 특별출연해 화려하고 신명난 무대를 꾸민다.

본선은 10월 4일 낮 12시 30분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

연장에서 판소리 명창부, 기악, 무용부문 경연으로 펼쳐진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각 부문별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수상자가 결정된다.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40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순금 임방울상(像) 트로피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명창부 최우수상은 상금 2000만원, 농악일반부 대상 1000만원, 농악일반부 최우수상 700만원, 기악일반부·판소리·무용·가야금·병창·시조·퓨전국악 일반부 최우수상 각 4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본선 대회 실황은 SBS TV로 전국에 생중계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출신 지영, 수림문학상 당선작 '사라지는...' 상금 5000만원

광주 출신 지영(37·본명 최지영·사진) 작가가 제9회 수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장편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이며 상금 5000만원.



수림문학상 심사위원단은 본심에 올라온 장편 여섯 편을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추천한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을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영 작가는 2017년 5·18신인문학상에 단편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가 당선돼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수림문학상은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연합뉴스와 수림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했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은 테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깨어난 뒤 모국어를 잃는 대신 접해본 적 없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독특한 소설이다. 특히 원고지 1000매 가까운 소설 전체를 인터뷰와 관련 기사만으로 채우는 형식을 택했음에도 구성이 산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모국어를 잃고 전혀 다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몸에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바뀐 것과 같아, 결국 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언어에 대한 놀라운 천착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지 작가는 이화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생 졸업했으며 현재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동양어문학부에서 한국어를 강의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순에 열리며 당선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삶과 애환 앵글에 담다

숯과나눔, 광주 메이홀서 10월 3일까지 사진전

아무도 없는 시골마을에서 홀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할머니, 마스크를 쓰고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쓰레기 집하장에 버려진 수십만개의 마스크,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있는 상가, 마스크를 쓰고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는 식당 주인.

코로나 19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들은 잠시 멈춰서서 여러 생각을 하게한다.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이 삶의 애환과 목소리를 드러내 공유하고, 이를 기록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재단법인 숯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이 서울과 대구에 이어 광주 메이홀(10월3일까지)에서 열고 있는 전시 '숯과나눔 코로나19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전이다.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견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기록이자 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전시 타이틀 '거리의 기술'은 '거리두기'의 기술(技術)이자, '코로나19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기술(記述)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주최측은 전시회의 의도를 잘 구현하기 위해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 대구방천시장 '갤러리 토마' 등 각 도시를 상징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를 전시 장소로 택했다. 광주



재단법인 숯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오는 10월2일까지 '숯과나눔 코로나19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전을 진행한다.

특별전이 열리는 '메이홀(May Hall·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 1)'은 광주지역의 대안적 문화공간을 꿈꾸며 민간인들이 만든 비영리 자생공간으로, 공간 이름처럼 오월 항쟁과 노동자의 광장을 상기시킨다.

전시에는 고정남·노순택·박지원·신용재·오석근·최영진·한금선·강유환·고은희·김경훈·박종권 등 모두 22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광주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리일천·이세현·조현택 작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오석근 작가는 현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보내준 삶의 풍경을

모니터에 띄운 후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창밖의 풍경만 이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라면'을 선보이며 신용재 작가는 문을 닫은 가게 등을 통해 기능할 수 없는 절망이 담긴 모습을 담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전시하고 있다.

또 전시와 함께 '숯과나눔 코로나19 사진이카이방' 책 '거리의 기술'(도서출판 풀씨)도 발간됐다. 책에는 출판작가들의 사진 작품과 숯과나눔이 지원한 21개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조사 결과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도 실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은봉, 풀꽃문학상 풀꽃상 수상작 '걸어다니는 별' 상금 1000만원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하며 다수의 문인 제자를 양성했던 이은봉 시인(사진)이 제8회 풀꽃문학상 풀꽃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걸어다니는 별'이며 상금은 1000만원.



풀꽃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를 갖고 이 시인의 시집 '걸어다니는 별'을 풀꽃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문호치(위원장), 구재기 시인, 유성호 평론가(한양대 교수)는 "생명 지향의 세계가 깊고 단정한 미학적 징후를 머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집은 이은봉 시학의 정점에 놓일 것"이라고 평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이 시인은 1984년 17인 신작시집 '마침내 시인이'로 등단했으며 시집 '걸어다니는 별', '생황', '봄바람, 은어우' 등을 펴냈다. 김달진문학상과 시와 시학상, 송수권 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제4회 풀꽃문학제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